[UCI]I804:24011-200000233157

2006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마비와 각성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재 승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마비와 각성

Paralysis and Awareness in James Joyce's *Dubliners*

200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재 승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마비와 각성

지도교수 나 하 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재 승

김재승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재 풍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 기 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나 하 엽 인

2005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iii

I. 서 론 ····· 1

II. 본 론 ····· 5

A. 마비의 유형 ····· 5

1. 종교적 마비 ····· 5

2. 도덕적 마비 ····· 21

3. 경제적 마비 ····· 27

4. 정치적 마비 ····· 30

5. 문화적 마비 ····· 34

B. 마비의 각성과 극복 ····· 38

III. 결 론 ····· 47

참고문헌 ····· 50

ABSTRACT

Paralysis and Self-Awareness in James Joyce's *Dubliners*

Jae-seung Kim
Advisor : Prof. Ha-yeop Na
Major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Dubliners, James Joyce's first work, is composed of fifteen stories based upon life in Dublin. Its main theme is the paralysis of Dublin society. Its structure is divided into four periods: childhood, adolescence, maturity and public life. *Dubliners* is a work having the same scenery throughout Dublin and the consistent structure or theme of paralysis in Dublin society. The repetition of images or symbols are found everywhere in *Dublin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paralysis in *Dubliners*, and how the hero awakens and overcomes the paralysis in "The Dead" as a synthesis.

The theme of paralysis begins with an old priest's physical disease in the first story, "The Sisters," and is apparent in all the other stories of *Dubliners*. In this paper, classified are five aspects of paralysis which are religious, moral,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The theme of paralysis leads to self-awareness. Some characters recognize their own problems and try to solve them. Joyce's purpose of writing the book seems to help Irish people realize their spiritual conditions

and escape from them. Such self-awareness culminates in the final story, "The Dead."

"The Dead" summarizes the major theme of *Dubliners* and serves as an epilogue. Gabriel Conroy, who finally breaks the wall of his pride and egotism and feels the mutual dependency of the living and the dead, arrives at self-awareness.

In the end, Joyce presents his country Ireland as a center of paralysis in *Dubliners*. And then, he makes his characters who live death-in-life in Dublin experience some severe paralysis and he, at the same time, emphasizes a spiritual deliverance of his country through his characters' experience of paralysis.

Ⅰ. 서 론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은 소설류로는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최초의 저작이며 그의 나이 22세와 25세 사이인 1904년에서 1907년 사이에 쓰여진 단편집이다. 첫 머리에 실린 「자매」("The Sisters"), 「이블린」("Eveline"), 「경주가 끝난 뒤」("After the Race")는 조이스가 노라(Nora)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기 이전에 쓴 것으로서, 『아이리쉬 홈스테드』(*The Irish Homestead*)에 실렸었다. 나머지 단편들은 폴라와 트리에스테에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집안을 꾸려가기에도 버거웠던 시기에 쓰여졌다. 애초에 12편을 한데 묶은 단편집을 런던의 출판업자인 그랜트 리차아즈(Grant Richards)가 1906년 2월에 간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곧 「두 부랑자」("Two Gallants"), 「작은 구름」("A Little Cloud")의 2편을 첨가하기로 했고 「죽은 사람들」("The Dead")은 1907년에 탈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블린 사람들』이 간행된 때는 1914년 6월이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나오게 된 까닭은 출판업자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작품 속에 “bloody”라는 저속한 말을 많이 사용한 점, 둘째는 실제지명과 인명을 사용한 점, 셋째는 여성의 묘사에서 외설적 표현을 한 점이다. 지금 생각하면 과도한 신경과민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프로이드의 사상이 아직 일반화되기 이전인 20세기 초엽이요, 또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교도인 아일랜드에서의 일이니 만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이스는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대륙에서 그의 삶을 꾸려갔다. 자기의 고국인 아일랜드에 대해서 그는 속칭 애국심이라는 모호한 감정은 갖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문학상의 코스모폴리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의 모든 작품에는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민들을 다루고 있다. 더블린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문학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출판사들과 옥신각신하는 동안 조이스는 출판업자에게 자신이 『더블린 사람들』을 쓴 예술가적 목적을 밝혔다.

> My intention was to write a chapter of the moral history of my country and I chose Dublin for the scene because that city seemed to me the center of paralysis. I have tried to present it to the indifferent public under four of its aspects: childhood, adolescence, maturity and public life. The stories are arranged in this order. I have written it for the most part in a style of scrupulous meanness and with the conviction that he is a very bold man who dares to alter in the presentment, still more to deform, whatever he has see and heard.[1)]

조이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더블린 사람들의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마비를 여러 양상으로 서술하려 했다. 이들을 통해서 조이스는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의 무기력과 갈망과 좌절을 구체적으로 다룸과 동시에 낙후되고 피폐한 경제적 상황, 아일랜드의 전통의 소멸, 정치적 열망의 좌절과 기회주의의 팽배, 인습으로 전락한 종교, 창조적 기질을 계발해주지 못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다루고 있다. 조이스에게 더블린은 마비의 중심이며 죄에 물들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마비의 중심"(centre of paralysis)에 갇혀있는 더블린 사람들은 "생중사"(living death)의 상태에 있는 의식 없는 존재들이다. 더블린을 정신적 죽음이 만연한 곳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I[Joyce] always write about Dublin, because if I can get to the heart of Dublin, I can get to the heart of all the cities of the world. In the particular is contained the universal.[2)]

현대사회에서 파리나 런던 등 어느 도시에서나 현대인들의 정신적, 도덕적 죽음

---

1) Richard Ellmann, *James Joyc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6), p.134.
2) Richard Ellmann, *James Joy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p.520.

의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조이스는 그가 잘 아는 도시인 더블린을 배경으로 택하여, 그곳을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특수한 것을 통해서 보편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무기력하고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는 생중사(death-in-life)의 이미지 즉 "마비의 주제"(the theme of paralysis)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마비의 주제"는 『더블린 사람들』의 첫 작품인 「자매」에서 노신부의 신체적 마비(physical paralysis)로 도입되어 마지막 작품인 「죽은 사람들」의 가브리엘 콘로이(Gabriel Conroy)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편에서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더블린 사람들은 "마비"(paralysis)라는 동일한 주제를 사용하여 아일랜드의 도덕사의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하여 정치, 사회, 종교를 총망라하는 정신적 마비 또는 부패의 중심지로 더블린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조이스 문학의 독특한 특징의 하나는 에피파니(epiphany)의 수법이다. 그는 에피파니를 "갑작스러운 정신적 현시"(sudden spiritual manifestation)라고 말하고 있다.[3] 『더블린 사람들』의 주인공들은 모두 이런 에피파니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의 이야기들은 "일련의 문학적 현현들"(a series of literary epiphanies)[4] 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인공들이 경험하는 정신적인 깨달음의 순간은 죽음의 상태에서 삶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더블린 사람들』의 각 단편들은 주인공들이 마비를 인식하게 되는 "부정적 에피파니"(negative epiphany)로 끝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드러내는 피폐한 삶의 모습에서 정신적 죽음, 다시 말하자면, 비평가 휴 케너(Hugh Kenner)가 말하는 이른바 "공허의 에피파니"(empty epiphany)로 일관되고 있다.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작품인 「죽은 사람들」은 앞선 14개의 단편들에서처럼 생중사의 인물들로 가득 차 있으며 더욱 강한 죽음의 이미지로 심각한 마비의 양상을 드러낸다 하겠다. 그러나 주인공 가브리엘 콘로이가 눈(snow)을 바라며 각성하는 장면은 정신적 부활을 느끼는 "창조적 에피파

3) W. Powell. Jones, *James Joyce and the Common Reader*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55), p.12.
4) A. Goldman, The Joyce Paradox: Form and Freedom in His Fict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6), p.5.

니”(creative epiphany)로 반전된다. 마비는 작품 전체를 통해 심화되어가며 이는 “에피파니" 순간에 통렬한 자기인식과 병행된다.

조이스는『더블린 사람들』을 통해 마비와 좌절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러한 마비의 체험을 통해 조국 아일랜드의 정신적 해방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더블린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체험이 담긴 이 작품을 읽음으로써 마비된 자아를 깨닫기를 기대한 듯하다. 더블린과 더블린 사람들의 혹독한 마비와 무질서한 현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각을 거쳐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희망적이고 정돈된 더블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 한 것이다. 이렇듯 『더블린 사람들』에서는 인간의 모든 병폐적인 모습을 마비로 보고 있으며, 전혀 다른 성격의 등장인물로 인해 상호연관성이 없어 보이나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주제와 상징들이 반복되어 있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각 단편에 부여하여 15편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주며 마지막 「죽은 사람들」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나는 마비의 유형들을 종교적,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마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마지막 작품인 「죽은 사람들」을 통해 마비의 양상이 어떻게 각성되고 극복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A. 마비의 유형

1. 종교적 마비

「자매」에서는 서두부터 어둠과 밤, 그리고 죽음의 배경 속에 절망적 분위기가 묘사되고 있다. 이 작품은 어린 소년이 한 신부의 죽음을 통해 종교적 마비를 인식하는 것을 다룬 작품이다. 플린(Flynn) 신부는 아버지가 없는 주인공 소년에게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세계로 인도해 주는 정신적인 지주이며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신부는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이러한 플린 신부의 죽음은 주인공인 소년에게 더블린의 종교와 관련된 마비의 증상을 각인 시킨다.

「자매」는 플린 신부의 신체적 마비로부터 시작된다. 처음부터 제시되는 마비는 주인공 소년에게 경절형(gnomon)과 성직매매행위(simony) 라는 두 단어를 연상시킨다. ”경절형"이란 평행사변형의 한 각을 포함하고 그 닮은꼴을 끊어낸 나머지 부분을 가리키며, “성직매매행위"는 가톨릭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성직에 있어서의 승진, 보수, 이득 그리고 성물등을 팔고 사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경절형"의 불완전성은 신부의 마비로 인한 불완전성을 의미하게 되며, 이것은 “성직매매행위"와 함께 연상되어 정신적, 종교적, 도덕적인 면에까지 확대된다. 즉 플린 신부는 아일랜드의 종교를 대표하고, 그의 신체적 마비는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부패한 아일랜드의 종교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에서 플린 신부의 마비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사제라는 직분에서 생기는 과중한 부담으로 성직 매매행위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소년은 저녁식사 시간에 신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는데, 평소부터 신

부를 좋지 않게 말했던 카터(Cotter)씨는 신부가 죽고 난 다음에 까지 그를 비난하여 소년을 기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신부의 죽음에 대해 무엇인가를 감추는 듯한 이야기를 하여 소년을 의문 속에 빠뜨린다.

소년은 플린 신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카터씨를 비난하면서도 신부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할 수가 없다. 신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던 날 밤 소년은 자신도 알 수 없는 꿈을 꾼다. 그 꿈에서 소년은 중풍으로 죽은 신부의 고해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고, 풍습이 전혀 다른 머나먼 이상한 나라로 간 듯한 느낌을 갖는다. 그 다음날 소년은 신부의 집 앞 까지 가지만 선뜻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혹감을 느낀다.

> I found it strange that neither I nor the day seemed in a mourning mood and I felt even annoyed at discovering in myself a sensation of freedom as if I had been freed from something by his death.[5)]

왜냐하면 소년은 평소에 존경해 오던 플린 신부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소년과 숙모가 상가를 방문했을 때, 죽은 신부의 누이들은 숙모와 소년에게 크랙커(cracker)와 셰리(sherry)주를 대접하여 예의를 표한다. 이때 소년은 크랙커 대신에 술을 조금 마시는데 이는 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신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죽은 신부의 위대한 욕망을 풀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부의 여동생 일라이자(Eliza)에게서 신부가 미사도중에 실수로 성배를 깬 일이 있는데 그 후 신부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 It was that chalice he broke... That was the beginning of it. Of course, they say it was all right, that it contained nothing, I mean. But still... They say it was the boy's fault. But poor James was so

5) James Joyce, *Dubliners* (Seoul: Shinasa, 1977), pp.33-34.(이하의 인용문은 이 책에 의함)

nervous, God be merciful to him.(p.40)

피크(C. H. Peake)에 의하면, 신부가 미사 집행을 할 때 교회의 상징인 성배를 깨뜨린다는 것은 종교의식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배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 종교가 형식만 남았을 뿐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한 진실 된 종교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는 곧 종교 자체가 성배처럼 비어 있으며 마비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한다.[6] 플린 신부의 “마비"는 단순한 육체적인 "마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타락한 아일랜드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어진 성배의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워렌 벡(Warren Beck)은 신부를 괴롭히던 것이 성직 매매죄, 즉 깨어진 성배를 여전히 품고 있듯이 믿음을 이미 잃어버렸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는 과중한 성직을 수행해야 했던 것으로 본다.[7]

이와 같은 플린 신부의 태도는 곧 믿음과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아일랜드 교회의 일면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끝부분에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비웃는 듯이 어두운 고해소에 홀로 앉아 있는 신부의 모습은 마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은 아일랜드 삶의 상징(symbol of Irish life)인 것이다. 이러한 신부의 무능력과 부패는 항상 넋을 잃은 듯 조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플린 신부가 죽은 6월 1일은 종교적,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다. 종교적으로는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식의 봉사자이며 희생적인 구세주로서의 예수를 찬양하는 성혈제(Feast of the Precious Blood)이며, 역사적으로는 민족과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희망을 깨뜨린 보인전쟁(Battle of the Boyne)이 있었던 날이다.[8] 그러므로 플린 신부가 이날 죽었다는 것은 그가 신성한 구현자, 그리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구세주 예수의

---

6) C. H. Peake,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p.13.

7) Warren Beck, *Joyce's Dubliners: Substance, Vision and Art.* (Duke University Press, 1969), p. 96

8) Florence L. Walzl, "Dubliners,"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eds. Zack Bowen and James F. Carens (London: Greenwood Press, 1984), p.209.

대리자이자 신앙의 상징으로서의 플린 신부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패배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매」라는 제목에서 말하듯이 자매들이 보여주는 의미 역시 더블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년은 상가에서 두 자매 내니(Nannie)와 일라이자(Eliza)를 만나는데 초라하고 천대를 감수하는 듯한 내니의 태도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짓눌려 굴욕과 빈곤에 허덕이는 아일랜드를 나타내며 그녀의 어두운 귀는 옳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부패한 성직자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리고 죽은 신부의 의자에 앉아서 내니에게 지시하며 신부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에 따른 판단까지 내리는 등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일라이자 역시 위선과 인습 속에서 권위만을 내세우는 가톨릭교회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9]

조이스는 신부의 마비증세, 일라이자와 내니의 모습을 통해 타락한 더블린의 종교적 마비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작품 「우연한 만남」(“An Encounter”)은 추악한 성인 세계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의 경험이 그려져 있다. 좁고 닫힌 세계인 더블린을 벗어나려한 작가 조이스의 비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모습의 좁고 어두운 학교의 복도와 더러운 거리 등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크게는 조이스의 작품세계를 지배해온 가족, 국가, 종교라는 올가미로서 감수성이 풍부한 천진난만한 소년에게는 바다, 태양, 동쪽과 같은 열린 세계와 절대적 대칭을 이루게 된다. 「우연한 만남」은 여행, 그것도 소년의 모험여행이라는 고전적인 원형(archetype)을 꿈꾸는데서 비롯된다. 소년의 여행 목적지인 피젼 하우스(Pigeon House) 발전소는 서쪽에 자리하고 있고, 비둘기(Pigeon)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작용하는 성령(Holy Ghost)을 뜻하고 있다. 호머의 『오딧세이』, 단테의 『신곡』, 번얀의 『천로역정』, 그리고 멜빌의 『모비딕』등이 상징적으로 여행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왔던 것처럼, 가벼운 전쟁놀이나 인디안 놀이 따위에 싫증을 느낀 소년은 꿈의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

---

9) Brewster Ghiselin, "The Unity of Dubliners," *Dubliners : Text, Criticism and Notes,* eds. by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Massachusetts: Penguin Books, 1977), p.70.

> The mimic warfare of the evening became at last as wearisome to me as the routine of school in the morning because I wanted real adventures to happen to myself. But real adventures, I reflected, do not happen to people who remain at home: they must be sought abroad.(p.44)

소년은 피젼 하우스로 가던 도중에 노르웨이에서 온 배를 보고, 화려했던 바이킹 시대를 생각하며 배에 가까이 가서 선원의 모습을 바라 보지만, 그것들은 소년이 꿈속에서 보던 모습과 너무 달랐다. 소년의 도피와 모험은 “푸른 눈”(green eyes)을 가진 사람에 집중되지만 “푸른 눈의 유일한 한 사람 노르웨이 항해사”(green-eyed Norwegian Sailor)의 평범하고 단순한 외모, 동작 때문에 낭만적인 소년의 꿈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만다. 소년이 꿈과 낭만의 상징인 피젼 하우스까지 가는 것을 싫증이 나서 포기하는 것은 종교상의 7대 죄 중의 나태의 죄(sin of sloth)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더블린 사람들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신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나태로 인하여 더블린 사람들의 종교 활동이 정상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음을 표현한 것으로 더블린의 종교적 마비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피젼 하우스로 가는 것을 포기한 소년들은 들판에서 푸른 눈(bottle-green eyes)을 가진 이상한 옷을 입고, 불안한 걸음걸이를 하는 괴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늙은이는 신에 대한 배교자를 상징한다. 그 노인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책이며, 여자친구 얘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노인치고는 매우 관대하고 유식하다고 소년은 느낀다. 그런데 그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이는 바로 「자매」에서 플린 신부가 헤어나지 못했던 정신적 마비의 상징이다.[10] 노인의 말은 모순 투성이고 횡설수설하며, 마치 마음이 어떤 궤도를 빙빙 도는 것과 같다. 이 순환운동은 마비된 인물들의 전형적인 움직임으로 감금을 나타낸다. 즉 노인은 마비상태에 있으며, 「자매」의 플린 신부와 마찬가지로 마비된 아일랜드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

10) Patrick Parrinder, *James Joy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56.

다. 특히 노인에게서 볼 수 있는 원형의 동작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은 감금, 마비라는 『더블린 사람들』의 중심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데, 마비된 인물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질식할 것 같은 도시에서 곧바로 비상하지 못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한없이 맴돈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세계에의 동경과 모험을 갈망하여 도피를 시도한 소년은 도중에 마비된 세계에 부딪침으로써 좌절하여 다시 규범 속에 갇힌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소년의 욕망의 좌절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정체되고 마비된 더블린의 삶과 종교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에 갇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의지력의 결핍이 소년의 좌절의 원인인 것이다.

앞의 두 단편처럼 「애러비」(“Araby”)도 일인칭으로 서술되며, 표면적으로는 낭만적인 사람의 꿈이 환멸을 경험함으로써 좌절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배경으로 설정된 소년의 집에 대한 묘사에서 암시되는 종교적인 면이 주제를 이어나감을 볼 수 있다. 즉 「자매」와 「우연한 만남」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상력이 풍부한 주인공 소년의 꾸밈없는 시선이 부패되고 타락한 종교를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현실에 깊은 좌절을 느끼는 것이다.

소년이 살고 있는 집은 갈색의 꽉 막힌 골목 끝 집이고 그 집의 방 한 칸에는 전에 살던 신부가 읽던 노란 표지의 책들이 먼지 덮힌 채 쌓여 있으며, 집 뒤의 거칠어진 정원에는 타락한 에덴동산을 상징하는 사과나무와, 마치 뱀과 같은 펌프가 녹슨 채 있다. (p.56) 이러한 묘사는 종교에 대한 색채를 강하게 풍겨준다.

망간의 누이(Mangan's sister)에 대한 소년의 사랑도 외견상으로는 마치 성스러운 마리아(Virgin Mary)에 대한 종교적인 사랑과 같다. 망간의 누이가 수녀원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아일랜드 가톨릭교회를 반영하며,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누이(sister)라고만 밝힘으로써 수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소녀를 사랑하는 소년의 태도는 마치 적들의 무리 속에서 성배를 운반하는 것으로 상상되며, 망간의 누이 이름이 기도와 찬사로 말해지기도 하고, 자신의 사랑을 혼란된 숭배라고 말한다. 소년이 사랑하는 망간의 누이는 늘 갈색의 모습이다. 갈색은 조이스가 마비와 부패를 그릴 때 사용하는 색깔인데, 아일랜드 교회를 상징하는 그녀의 모습이 갈색

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아일랜드 교회의 마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소년들의 순수한 꿈이 현실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소년은 신부가 유서를 남겨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기증한 것을 보고 신부의 관대함에 대해 감탄하지만 신부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유서에서까지 재산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현실에서 물질의 부질없음과 천당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가르치는 신부 본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일면이라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소년의 환경이 종교적으로 세속화 되고 마비된 것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망간의 누이에 대한 소년의 맹목적인 사랑은 그녀를 미화시키며, 이것은 나아가 소년이 망간의 누이와 동일시 하게 되는 애러비 바자에 대해서 낭만적인 꿈과 기대를 갖도록 한다. 이처럼 소년이 망간의 누이에 대해 품은 사랑은 더블린 사람들의 아일랜드 가톨릭교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블린 사람들의 실제적인 교회의 추구는 성스럽지도 신비롭지도 않고 물질로 세속화되었을 뿐임을 볼 수 있다. 소년은 망간의 누이에게서 애러비 시장에 대해 듣고 그곳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찾아 나선다. 아일랜드 가톨리교회에 대한 추구로 볼 수 있는 애러비 시장에 가는 소년의 태도는 “주님의 밤”(this night of our Lord) 이후로 시장에 가는 것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숙모의 만류도 뿌리치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고 감으로써, 주님의 밤도 무시한 채 애러비 시장을 찾아가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허상을 보여 준다. 소년은 애러비 시장에서 그를 실망시키는 현실에 부딪친다. 거기에는 신비스런 이름과 어울리지 않은 가설된 나무 플랫폼이 있었고, 안쪽의 가게들은 이미 닫혀 있었다. 소년이 애러비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늦었고, 그곳은 마치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빠져나간 교회처럼 조용한 시장 안에 두 사람이 돈을 세고 있었다. 그곳의 어두움은 소년이 사는 골목이나 집주위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분위기이다. 어둡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곳의 간판이 채색되어 빛나고, 동전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소년이 꿈꾸는 애러비 시장이 아닌 것이다. 아름다운 낭만을 찾아 그곳에 온 소년은 가장 속된 것들을 발견 할 뿐이다. 신비스런 매력을 약속해 주던 곳은 이제 그 허위성을 드러내고, 죽은 신부의 집처럼 차갑고, 어둡고, 인위적인 것으로 되어 버렸다.

Nearly all the stalls were closed and the greater part of the hall was in darkness. I recognized a silence like that which pervades a church after a service.(p.63)

애러비 시장에서 젊은 여점원은 소년을 별로 반기지 않고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 그 여점원과 남자들과의 무의미하고 천박한 대화는 소년에게 자신이 처한 환경이 허위 투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

'O, but you did!'
'O, but I didn't!'
'Didn't she say that?'
'Yes, I heard her.'
'O, there's a....fib!'(p.63)

소년은 그들의 대화의 통속성에 실망하고 그동안 품었던 낭만적인 사랑이 한낱 환상에 불과하며 이러한 천박하고 거짓된 현실 속에서는 순수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어른들의 농락과 무관심에 심한 분노를 느끼면서 스스로 질책한다. 그동안 망간의 누이의 외모에 현혹된 자신의 사랑이 한낱 허위의 식이었음을 깨닫는 에피파니를 경험하게 된다.

Gazing up into the darkness I saw myself as a creature driven and derided by vanity and my eyes burned with anguish and anger.(p.64)

결국 더블린의 종교는 애러비 시장에서 유대 성전안의 환전상을 연상시키는 돈세는 남자들처럼 금전으로 오염되고 남자들과 하찮은 농담을 주고받는 여자 점원처럼 부패되었음이 드러난다.

「짝패들」(“Counterparts”)에 등장하는 패링턴(Farrington)은 「작은 구름」(“A Little Cloud")의 리틀 챈들러(Little Chandler)처럼 좀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생활과 직장업무에 지쳐있고, 좌절된 삶을 살고 있는 더블린 사람들의 일원이다. 그러나 챈들러가 소심하고 섬세한데 반해 패링턴은 폭력적이고 외향적이다.

패링턴은 직장상사인 앨레인(Alleyne)의 분풀이 대상자이다. 앨레인은 성난 음성으로 패링턴에게 사무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며 점심을 오래 먹는 다고 야단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되면 고용주인 크로스비(Crosbie)에게 알려 패링턴을 파면시키겠다고 위협한다. 이렇게 직장상사가 굴욕을 주거나, 세상이 자신을 모욕할 때, 그는 화가 나서 무엇이든 파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러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때면 술을 마셔 자신의 의식을 스스로 마비시키려 한다.

> A spasm of rage gripped his throat for a few moments and then passed, leaving after it a sharp sensation of thirst. The man recognized the sensation and felt that he must have a good night's drinking.(p.134)

패링턴은 분노가 차오르면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면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으로 도피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 조이스는 더블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술주정뱅이로 묘사하고 있다. 「애러비」에 등장하는 소년의 아버지, 「이블린」에서 이블린의 아버지, 그리고 「담쟁이 날의 선거사무실」(“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에서의 선거 운동원들이 그런 예들인데 모두 패링턴처럼 현실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을 때에 술집을 찾는다.

술에 만취되어 집에 돌아온 패링턴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길이 없어 아들에게 심한 매질을 한다. 계속되는 아버지의 매질에 아이가 “성모송”(Hail Mary)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위급할 때 쓰는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Ave

Maria)와 같은 의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11)]

> 'O, Pa!' he cried. Don't beat me, pa! And I'll...I'll say a Hall Mary for you, pa, if you don't beat me... I'll say a Hail Mary...'(p.148)

패링턴의 무자비한 매에 소년은 기도로써 아버지의 매를 모면하고자 호소하고 있다. 이렇듯 매 맞고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위해 성모마리아에 기도할께요"(I'll say a Hail Mary for you...)라는 외침은 위급할 때 하느님을 찾는 아일랜드 가톨릭의 내부적 부패와 종교적 의식이 마술로 바뀐 종교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진흙」("Clay")은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는 마리아(Maria)가 만성절을 조카의 집에서 보내며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생중사의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종교적 마비의 일상을 엿 볼 수 있다.

여주인공 마리아는 언제나 달래듯 나직이 "예, 아니오"('Yes, my dear.', 'No, my dear.')하며 빨래통 때문에 싸우는 여자들의 화해를 붙이는 중재자(peace-maker)이다. 이렇게 중재자로서의 마리아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조이스는 세탁부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Virgin Mary)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중재자로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상황에 이르러서는 그녀는 이를 개혁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기 보다는 "그러나 그런 것이 삶이지"(but such was life)라며 체념해 버린다. 마리아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다. 세탁소는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곳이며, 따라서 마리아는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비유될 수 있다. 마리아는 처녀이면서도 조(Joe)와 앨피(Alphy)를 길러 준 사람이었다. 조는 그녀를 진정한 어머니(proper mother)라고 생각한다.

> She had nursed him(Joe) and Alphy too; and Joe used often to say: 'Mamma is mamma but Maria is my proper mother.'(p.150)

---

11) William York Tindall,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Noonday, 1966), p.29.

이러한 점에서 그녀는 동정녀 마리아와 비슷하다. 마리아에게는 전통적인 아일랜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당시 사람들처럼 마리아는 신교도가 운영하는 “더블린의 등불”(Dublin by Lamplight)이라는 갱생원에서 생활하며 기꺼이 모든 일을 감수하고 있다.

조의 만성절 전야파티에서도 그들은 전통적인 아일랜드의 신수게임을 할 때 마리아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흙을 담아 둔 접시를 고르며, 도넬리(Mrs. Donnelly)부인의 충고에 따라 다음번에는 기도책을 고른다. 진흙과 기도서는 마리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Both are true fortunes: the clay represents the only fortune the future will bring Maria-death; and the prayer book is Joyce's ironic commentary on her present fortune, a life among quarrelsome fallen women in a reformatory -a life as straitened as in a nunnery but without the spiritual elevation and peace of the convent.[12)]

진흙은 언젠가는 마리아가 맞이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도서는 아직까지 가정의 따스함이나 남녀간의 애정을 접해 보지도 못하고, 수녀의 삶과 같은 영혼의 평안을 얻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마리아의 현재를 상징한다. 마리아가 나타내는 성모마리아, 즉 아일랜드 가톨릭교회와 아일랜드는 마리아가 고른 진흙과 기도책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신수게임이 끝난 후 그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는 즐거운 분위기로 다시 돌아간다. 조가 마리아에게 옛노래 한 곡을 불러주기를 청하자 그녀는 젊었고 조가 어린애였을 때 그에게 불러주었던 “I Dreamt that I Dwelt"란 노래를 한다.

> I dreamt that I dwelt in marble halls
> with vassals and serfs at my side,

12) Florence L. Walzl, "Dubliners,"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eds. Zack Bowen and F. Carens (London: Greenwood Press, 1994) p. 178.

And of all who assembled within those walls
That I was the hope and the pride.

I had riches too great to count, could boast
of a high ancestral name,
But I also dreamt, which pleased me most,
That you loved me still the same.(p.158)

마리아는 상기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구혼의 내용을 담은 2절은 빠뜨리고 1절만 반복한다.[13] 그것은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결혼과 가정을 꿈꿔 왔지만 그녀의 이러한 꿈은 좌절되었고, 현재나 미래의 생활에 희망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과 가정의 단란함에 대해서는 인식의 세계에서는 물론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마리아는 아무런 삶의 보람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러한 것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의미없이 살아가고 있는 더블린 시민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마비의 상태 즉 죽음의 상태에 빠져, 습관적으로 불모의 일상 생활을 되풀이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마리아는 아일랜드 가톨릭교회이며 나아가서는 아일랜드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조는 마리아의 현실과 그녀의 소망의 차이를 깨닫고 그녀에 대한 연민 때문에 울고 있다. 조는 마리아, 아일랜드 가톨릭교회, 나아가서는 아일랜드가 처한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담쟁이 날의 선거 사무실」은 더블린의 정치적, 종교적인 마비를 다룬 작품으로, 타락한 정치와 맞물린 타락한 종교가 두드러져 보인다. 이야기의 배경은 아일랜드를 영도했던 챨스 스튜어트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의 기일에 맞추어, 동시에 정치적인 제도와 부패, 야비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파벌주의를 풍자하

13) Florence L. Walzl, "Dubliners"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eds. Zack Bowen and James F. Carens (London: Greenwood Press,,1984), p.178.

기 위해 설정되어 있다.

생명력의 상징인 담쟁이 잎을 달고 다니는 애국자로 파넬을 숭상하는 하인즈(Mr. Hynes)씨는 콜간(Colgan)이 영국에 대항하여 싸우는 인물이라며 그를 지지한다. 이윽고 수수께끼 같은 인물인 커언(Keon) 신부가 사무실에 나타난다. 그는 성직자로서의 직분을 잃고 교황청으로부터 그의 관할구를 박탈당해 미사도 고해성사도 수행할 수 없는 성직자로 평신도 사이를 애매모호하게 방황하는 존재이다. 이처럼 커언 신부는 자신의 역할인 종교적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는 “검은 양”(black sheep)으로 불려지고, 술집에서 정치가와 어떤 거래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얼굴은 부패의 색인 노란색이며, 그의 검은 옷은 악과 죽음의 어두움을 상징한다. 위에서 설명한 타락은 선거에 미치는 돈의 영향력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커언 신부는 일종의 악당으로 타락한 성직자를 암시한다.

> ‘What is he exactly?'
> 'Ask an easier one,' said Mr. Henchy.
> 'Fanning and himself seem to me very thick. They're often in Kavanagh's together. Is he a priest at all?'
> 'Mmmyes, I believe so... I think he's what you call a black sheep. We haven't many of them, thank God! But we have a few... He's an unfortunate man of some kind...'
> 'And how does he knock it out?' asked Mr O'Conner.
> 'That's another mystery.'
> ‘Is he attached to any chapel or church or institution or-'
> 'No,' said Mr. Henchy. 'I think he's travelling on his own account...
> God forgive me,' he, added, 'I thought he was the dozen of stout.'(p.185)

커언 신부는 정치와 결탁하여 애국자 파넬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타락한 더블린

의 종교를 상징하는 인물로 종교적 마비를 나타내고 있다.

「자매」에서의 소년은 순수하기 때문에 성인 세계의 종교적 마비를 보고 환멸을 느끼는데 반해서 「은총」(“Grace”)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들의 의식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 공허성이나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부의 물질주의적 타락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은총」에서 작중 인물들이 말하는 ‘은총'이란 정신적,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 세속적인 것이다.

커넌(Mr. Kernan)씨는 물질주의와 자기만족에 젖어있는 사람이다. 그는 외판원으로, 언제나 시내로 나올 때는 초라하지 않은 실크 모자를 쓰고 각반까지 차고 그 덕에 언제나 일이 잘 된다고 믿는다.

> He had never been seen in the city without a silk hat of some decency and a pair of gaiters. By grace of these two articles of clothing, he said, a man could always pass muster.(pp.221-222)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술집 지하실에 있는 화장실로 통하는 계단에 쓰러져 입언저리로부터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리고 그의 옷과 모자는 더럽혀져 있다. 이것은 그가 ‘은총'을 상실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은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을 때,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오로지 신의 은총만이 그를 정신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종교와 교회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의 대화는 가치전도가 더블린의 종교계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종교의 본질적인 면이 아니라 종교의 피상적인 위엄과 사회적 권위이다. 제수이트(Jesuit) 교단에 대해서 논할 때에 그는 제수이트 교단의 신도가 상류층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며 맥코이(Mr. M'Coy)씨는 그 교단이 사회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교단이 이제까지 한 번도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하는 커닝엄(Cunningham)은 변화를 싫어하며 자신들의 삶을 정체시키는 더블린 사람들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피정을 “그것은 하찮은 정신적인 문제”(it's a just a

little...spiritual matter)라고 말함으로써, 피정을 세속에서 잠시 벗어나 정신을 맑게 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기도로 “그릇을 씻자” (wash the pot)하자고 말하지만 그들에게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커넌이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가기로 한 것은 결코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친구들이 모두 참여하는 일에서 소외되기 싫어하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을 한사코 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더블린 시민들은 한결같이 종교의 참의미를 통찰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면만을 보고 있는데 신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퍼든(Purdon) 신부는 사제복의 넓은 소매를 큰 몸짓으로 뒤로 젖힌 다음 청중을 휘둘러 보고나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주제로 설교를 시작한다.

> For the children of this world are wiser in their generation than the children of light. Wherefore make unto yourselves friends out of the mammon of iniquity so that when you die they may receive you into everlasting dwellings.(pp.246-247)

그는 이 구절이 사업가와 직업을 가진 세속적인 인간을 위한 지침이라고 해석한다. 신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있어서 종교적인 일에 가장 관심이 없는 부의 숭배자들을 종교생활의 모범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퍼든 신부의 이와 같은 해석은 그리스도가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핵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이 비유에 뒤이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다음의 말들은 이 점을 극명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다.

>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 not serve God and mammon.(Luke, 16:13)

그리스도가 한 비유의 참 뜻은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세속적인 부를 섬기느냐 아니면 하느님을 섬기느냐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신부는 참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해석을 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합리화 시키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종교적인 설교란 엉뚱하고 과장된 것이므로, 자신은 세속의 한 인간으로서 사업상의 대화를 나누듯 이야기 하겠다고 한다. 여기에서 그는 성직자라기 보다 세속적인 사업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뒤이은 설교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퍼든 신부는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양립시키는 일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계 상의 기록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설교에서 알 수 있다.

> ‘Well, I have looked into my accounts. I find this wrong and this wrong. But, with God's grace, I will rectify this and this. I will set right my accounts!'(p.248)

그는 자신을 영혼의 회계사에 비유하고서 청중들에게 자기들의 영적 생활의 장부가 양심과 부합되는 지를 살펴서 만일 장부가 잘못 되어 있다면 신의 은총에 의해 그것을 바르게 고치라고 설교한다. 따라서 퍼든 신부도 이 작품에 등장하는 다른 더블린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종교를 세속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정신적인 마비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세 번이나 언급되는 ‘은총' 이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신의 은총이 아니라 사회적 체면이나 예의 바른 태도 등 세속적인 ’은총'를 의미한다. 첫 번째 ‘은총'은, 커넌의 생각에서 드러나듯이, 모자와 각반을 착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품위를 의미하고, 두 번째 ’은총'는 친절한 잡화상으로서의 포가티(Fogarty)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나타난다.

He[Fogarty] bore himself with a certain grace, complimented little children and spoke with a neat enunciation.(p.238)

즉, 고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취하는 예의바른 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은총'의 의미는 퍼든 신부가 한 설교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양심과 부합되지 않는 영적 생활의 장부를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친절한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더블린 시민들은 '은총'의 의미를 영혼에 내리는 신의 은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이익을 얻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커넌이 교회에서 찾은 '은총'이란 모자를 단정히 그의 무릎위에 올려 놓은 것으로 구현되는 사회적 체면과 품위의 회복에 불과하다.[14] 이와같이 더블린 시민들은 정신적으로 고양된 생활을 추구하기 보다는 외형에만 치중한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본질적인 것과 피상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는 그들의 마비된 정신세계를 드러내주고 있다.

2. 도덕적 마비

『더블린 사람들』의 각기 다양한 주인공들은 더블린의 도덕적 마비에 감염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선택하지 못하는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경험했기에 판단력이 마비되어 선택을 잘못하거나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블린」은 과거에 대한 악몽과 현재의 억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야기는 마치 육체가 마비된 듯 꼼짝않고 창 너머를 지켜보는 이블린의 모습에서 시작된다.

She sat at the window watching the evening invade the avenue.

---

14) C.H. Peake,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77), p.41.

Her head was leaned against the window curtain and in the nostrils was the odour cretonne. She was tired.(p.65)

이블린은 『더블린 사람들』 전체에서 유일하게 아일랜드를 벗어나려 한 주인공이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찢겨진 19세기 여성상을 통하여 생중사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동시대 아일랜드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블린의 아버지는 생활능력이 없어서 가장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술주정뱅이인데다가 가끔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마치 마비와 무기력의 상징인 아일랜드처럼 무용지물의 인간으로 보잘 것이 없다. 그녀의 어머니는 생활고에 찌들어 비참하게 살았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회한의 삶을 살다 끝내는 미쳐 죽게 된다.

조이스는 더블린이라는 곳을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불쾌하고 이기적이며 책임감이 없는 가장들에게 지배받는 곳으로 보고 있다.[15] 이블린의 어머니 또한 불행한 환경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 죽음으로써 항상 그녀의 가슴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지금 그녀의 의식은 어머니가 살아 있던 당시의 행복했던 과거시절과 어렵고 고달픈 현재의 생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미지의 세계로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이블린에게 도피의 희망을 제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녀는 우연히 프랭크(Frank)라는 한 선원을 알게 되면서 다정하고 친절한 그 남자에게 사랑에 빠진다. 그리하여 그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가서 살게 될 환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여기서 애인 프랭크는 순진한 이블린을 속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더블린에서 남아메리카로 직행하는 배는 없었기 때문이며 그 남자의 말은 순간적인 유혹에 지나지 않는다.[16]

그녀가 주변사람들을 등지고 프랭크를 따라 집을 떠나려 하면서도 그녀가 떠나면 잃게 될 직장을 걱정하는 행동에서 그녀의 도덕적 마비를 엿볼 수 있다.[17]. 이

15) James S. Atherton, “"Araby", James Joyce's Dubliners,” *Critical Essays,* ed. Clive Hart(London : Faber and Faber, 1969), p.41.

16) Matthew Hodgart, *James Joyce: A Student's Guide* (London : Routhedge & Kegan Paul, Ltd., 1978), p.46.

렇게 도덕적으로 마비된 이블린은 프랭크를 실제로 사랑해서 함께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새 삶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녀는 프랭크가 재촉하며 손을 끌자 두 손으로 쇠 난간을 굳게 잡는다. 그녀의 무섭도록 맹렬한 행동은 그녀의 '도덕적 마비'의 상징이 된다. 창백한 얼굴에 눈으로는 사랑의 표현도 작별의 인사도 표현하지 못한 채 무감각한 짐승과 같은 형상을 보여준다.

She set her white face to him, passive, like a helpless animal.
Her eyes gave him no sign of love or farewell or recognition.(p.71)

배에 오르는 난간에서 프랭크는 그녀에게 빨리 오라고 소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나선 그 희미한 사랑마저 마비되어 버린다. 즉 그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사랑의 감정마저 마비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죽은 어머니와의 약속,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새 삶에 뛰어 들지 못하는 이블린의 모습은 곧 더블린 사회의 '마비를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18].

인간의 도덕이 마비된 모습은 "「두 부랑자」("Two Gallants")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두 부랑자」에서는 코얼리(Corley)와 레너한(Lenehan)이라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배회하는 건달이 신분이 낮은 여성을 유혹하고 그녀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기생충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 혹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도덕과 양심을 상실한 더블린 사회를 대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코얼리는 목적 없는 생활속에서 사랑도 없이 여자를 농락하고도 책임과 양심은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담배와 왕복 전차 삯을 받아내는 도덕적으로 마비된 인물이다. 코얼리는 하녀에게 빌붙어 그녀의 돈을 착취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레너한은 그런 친구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이런 점에서 레너한은 코얼리보다 더 비

17) Brewster Ghiselin, "The Unity of Dubliner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s. by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Massachusetts: Penguin Books, 1977), p.329.
18) Hugh Kenner, *Dublin's Joyc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56), p.54.

천한 사람이며 코얼리가 남의 물건은 탐내는 것이 죄라면 레너한의 죄는 바로 그 태만이다.[19]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생활방식에 싫증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속박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두 주인공의 경제적인 무능은 도덕적인 무능이며 나아가서는 아일랜드 사회의 정신적인 타락으로 보여진다.

또한 코얼리에 의해 묘사되는 하녀에게도 도덕적 마비를 찾을 수 있다. 하녀의 신분으로 어렵게 번 돈을 이름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남성과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탕진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성에 대한 목적 상실은 물론 도덕적 타락을 의미한다.

마침내 하녀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코얼리가 손바닥에 놓인 금화를 레너한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배반과 타락을 상징한다. 즉 그가 하녀를 배반하는 그것은 조국 아일랜드를 배반하는 행위를 상징하며 사랑과 인간성 모두를 배반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두 주인공은 마비된 더블린 속을 배회하며 살아갈 뿐 벗어나려는 의지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더욱 마비에 빠져들고 있다. 결국 두 주인공의 도덕적 마비는 그대로 더블린이 겪는 도덕적 마비상을 비추고 있다.

결혼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하숙집」(“The Boarding House”)에도 「두 부랑자」에서처럼 인간관계가 상품화 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더블린 사람들의 등장인물 중 가장 악질적인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니(Mooney) 부인은 결혼한 남편이 술로 재산을 탕진하자 그와 별거하고 하숙집을 경영한다. 그녀는 하숙집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능란하고 엄격한 솜씨를 발휘한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곤란한 도덕문제가 발생할 경우라도 이를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게 처리하는 교활하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러운 여자이다.

그녀의 딸 폴리(Polly)는 천성적으로 분방하며 행동면에서 얌전치 못한 처녀로 소심하고 고지식한 밥 도란(Bob Doran)에게 의도적인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 순간적인 쾌락에 휩쓸린 도란은 폴리와 자연스럽게 정을 나눈다.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는 어머니 무니 부인은 의도적인 방임상태를 지속한다. 그녀는 도란의 사회적 신분과 개인적인 양심까지를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 놓고 교묘히 결혼이라는 굴레를

19) Harry Levin, *James Joyce :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 Faber and Faber Ltd. 1960), p.28.

씌우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이상에 맞지 않는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오는 좌절감을 자식을 통해 보상 받으려는 저변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20] 도란에게 교묘하게 결혼의 굴레를 씌우려는 무니 부인은 도덕적인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온당치 못한 어머니상"으로 바로 아일랜드를 상징한다.[21]

피해자라고 할 도란은 성실한 젊은이이지만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인물이다. 그는 폴리와의 관계에 대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감지하고 있지만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도란은 또한 폴리의 천박한 문벌과 무식함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경멸할 것이라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한다.

> But the family would look down on her. First of all there was her disreputable father, and then mother's boarding house was beginning to get a certain fame. He had a notion that he was being had. He could imagine his friends talking of the affair and laughing. She was a little vulgar ;sometimes she said 'I seen' and 'If I had've known.'(p.105)

13년 동안 한 직장에 근무하는 성실한 크리스찬인 도란은 어법도 모르는 처녀와 결혼하게 되면 기만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남을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적 애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오는 오만인 것이다. 도란은 무니부인에 의해 결혼을 강요당하자 결혼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고자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날아가고 싶어 한다. 여기서 도란은 인습, 환경 전통이라는 굴레에서 도피하고 싶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나 결국 그는 현실적으로 결혼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것은 그가 외적으로 부과되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헤쳐 나갈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는 폴리의 가족들로부터 예상되는 폭력과 냉소에 대한 두려움, 예상되는 교회와 신부의 책망과 폴리에게 저지른 도덕적 죄악에

---

20) Florence L. Walzl, *Pattern of Paralysis in Joyce's Dubliner's* (College English 1982), p.46.
21) Richard Ellmann, *James Joyce*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305.

대한 압박감 때문에 진실한 애정도 없이 결혼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복종해야 하는 순진한 소녀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는 폴리 역시 어머니 못지 않게 교활한 여자이다. 그녀는 19세로서 날씬하며 남과 얘기할 때면 푸른 기미가 있는 회색 눈을 살짝 치켜 뜨는 버릇이 있는 요부(temptress)의 속성을 지닌 여자이다. 폴리는 하숙집의 젊은이들과 예사로 어울려 시시덕거리기를 좋아하고 밤늦게 목욕을 하고 도란의 방을 찾아감으로써 그를 유혹한다. 처음부터 도란에게 뚜렷한 애정도 없었던 폴리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 무니가 그와 결혼시키기 위해 온갖 책략과 음모를 꾸며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녀의 어머니가 도란의 결혼제의를 받아들이게 그녀를 아래층으로 내려오도록 불렀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 At last she heard her mother calling. She started to her feet and ran to the banisters.
> 'Polly! Polly!'
> 'Yes, mamma?'
> 'Come down, dear. Mr Doran wants to speak to you.'
> Then she remembered what she had been waiting for.(pp.108-109)

폴리의 저급한 도덕성이 드러나 보이는 대표적인 대목이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있어서도 결혼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의 획득이 목적이다. 자신의 의지력의 결여로 모녀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란은 결혼에 동의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그의 꿈은 좌절된다. 이 장면은 나아가 아일랜드의 도덕적 타락을 일깨워 주며 애정없는 결혼관에 대한 강한 상징으로 적용된다.

무니 부인이나 폴리는 정신적으로 부패한 아일랜드 여성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녀가 빠져있는 도덕적 마비는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혼의 참된 의미가 마비된 채 딸의 활발한 성격을 이용해서 결혼시키려 했다는 점과, 여자가 곁에 있는 것을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점을 이

용해서 딸로 하여금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하여 집안에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이 나아지기를 기대했다는 점이다. 결국 한 청년을 결혼이라는 인습과 위선적인 도덕관으로 얽매이는 더블린의 도덕적 마비를 드러낸다.

더블린의 도덕적 마비는 「담쟁이 날의 선거사무실」(“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에서도 나타난다. 헨치(Henchy)는 티어니(Tierney)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돈이 나오지 않자 ‘빌어먹을 짠돌이 같은 인간’(mean little schoolboy of hell)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내 티어니에게서 맥주 상자가 도착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는 태도를 바꾼다. 이와 같은 헨치는 위선과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마비된 인간이며 아일랜드 사회의 도덕적 마비를 상징한다.

「어머니」(“A Mother”)에서 키어니(Kearney) 부인은 좌절된 자신의 이상과 꿈을 딸 캐드린(Kathleen)을 통해서 보상받으려 한다. 즉 딸을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키움으로써 자신의 젊은 시절의 꿈을 대신 만족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애국심과 민족주의적 열성 등을 희생하는 도덕적 마비를 보이고 있다.

3. 경제적 마비

더블린의 마비는 도덕적 삶이나 종교적인 영역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 면에서도 드러난다. 그런데 『더블린 사람들』 에서의 종교적, 도덕적 마비는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묘사된데 반해, 정치, 경제, 문화적인 것을 제재로 삶의 마비는 필연적으로 사회 모든 영역의 마비로 나타난다.

「경주가 끝난 뒤」(“After the Race”)는 자동차 경주를 통해 더블린의 전형적인 마비를 드러내며, 더블린의 마비가 경제적인 분야로 확대됨을 암시해 준다. 이 이야기는 돈과 부가 중심이 되며, 지미 도일(Jimmy Doyle)이라는 청년을 통한 더블린의 경제적 마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야기의 첫 단락은 경제적으로 무력한 더블린 사람들이 대륙의 부와 산업의 산물인 화려한 경주용 차가 질주하는 모습에 환호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At the crest of the hill at Inchicore sightseers had gathered in clumps to watch the cars careering homeward and through this channel of poverty and inaction the continent sped its wealth and industry. Now and again the clumps of people raised the cheer of the gratefully oppressed. Their sympathy, however, was for the blue cars-the cars of their friends, the French.(p.72)

부와 공업이 흥하여 선망의 대상이 된 대륙과는 정반대로 아일랜드는 빈곤과 무지의 상태에 놓여있다. 주인공 지미 도일은 부유한 대륙의 친구들로부터 삶의 진지한 모습을 배우기는 커녕, 도박을 통한 경제적 손실과 좌절감을 맛보면서도 그 수렁에서 능동적으로 헤쳐 나오지 못하는 무기력한 표본적 인물로, 더블린의 경제적 마비가 널리 퍼져있음을 보여준다.

주인공 지미 도일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민족주의자였으나 이를 버리고 나중에는 상업에 종사하여 많은 돈을 번다. 이와 같이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된 지미 도일의 아버지는 아들을 캠브리지로 유학 시켰으나, 그는 공부에 그리 열을 쏟지 않았으며 방종한 생활을 일삼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을 꾸짖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방종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겨 아들의 빚을 모두 갚아 주고 집으로 데리고 온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지미 도일은 돈을 중요시하며 돈을 버는 것보다는 대륙의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며 돈을 쓰는 것을 더 좋아하는 더블린의 청년으로, 인생관의 가치 척도는 항상 돈과 관련된다. 큰돈을 번 아버지의 재산증식 수완과 사업상의 통찰력에 존경심을 갖으며 또한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도 항상 경제적 능력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프랑스인 세구앵(Segouin)은 매력은 없었지만 큰 호텔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자신의 친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헝가리인 빌로나(Villona)는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함께 있으면 즐겁긴 하지만 가난한 것이 흠이라고 여긴다. 즉 돈에 마비되어 가치 판단의 기준마저 마비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자동차 경주가 끝나고 지미 도일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고급 음식과 술, 트럼

프 놀이, 요트에서 춤을 추는 등 무모한 허영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이러한 삶이 매력적이고 멋진 것으로 생각한다. 휴 케너(Hugh Kenner)는 이와 같은 지미 도일의 허영된 모습을 “반 더블린적 요소들”(all versions of anti-Dublin)이라고 말한다.[22] 이러한 것들은 그의 정신을 마비시켜 무감각한 몽롱한 상태를 즐기게 한다.

결국 지미 도일은 경제적으로 월등하며 그의 부러움의 대상인 대륙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손실과 좌절만 맛본다. 미국인 파알리(Farely)의 배에서 술에 만취되어 무감각의 상태에서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지미 도일는 의지의 부족으로 도박판을 떠나지 못하고 영국인에게 돈을 잃는다. 아침이면 후회할 줄 알면서도 중단하지 못하고 향락에 몸을 맡긴다. 이는 지미 도일이 마비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기력하고 마비된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마비된 더블린에서 안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He know that he would regret in the morning, but at present he was glad of the rest, glad of the dark stupor that would cover up his folly. He leaned his elbows on the table and rested his head between his hands, counting the beats of his temples. The cabin door opened and he was the Hungarian standing in a shaft of grey light: 'Daybreak, gentlemen!'(p.81)

자동차처럼 질주해 오는 대륙의 경제 앞에서 자기인식에 이르지 못한 마비된 지미 도일처럼 아일랜드는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빼앗겼고 그들에게 속박된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지미 도일의 개인적 경제적 마비일 뿐 아니라, 아일랜드 전체의 경제가 대륙의 경제에 침식되어 마비 상태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아일랜드의 경제적 마비는 「짝패들」(“Counterparts")에서도 엿볼 수 있다. 패링턴(Farrington)은 아일랜드의 경제의 무기력과 좌절을 나타낸다. 패링턴은 사무

22) Hugh Kenner, *Dublin's Joyc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56), p.55.

실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상사인 얼레인(Allyene)에게서 자주 비난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삭이기 위하여 항상 술을 가까이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시 상사 얼레인으로부터 꾸중과 잔소리를 듣게 된다. 패링턴의 얼레인에 대한 분노는 술에 대한 욕망을 자극시켰고 결국 술집으로 향하게 된다. 그는 얼레인에게서 무시된 자존심을 보상받기 위해 웨더스(Weathers)라는 영국 청년과 팔씨름을 하지만 패하고 만다. 더구나 시계를 저당 잡혀 빌린 돈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술값으로 모두 날려버려야 하는 손실을 겪고 있다. 패링턴은 여기에서 아일랜드의 평범한 서민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대륙의 상징인 영국 청년에게 패함으로써 민족적 패배의 상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즉 그는 아일랜드의 민족적 패배와 더불어 경제적 좌절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진흙」(“Clay”)의 마리아도 아일랜드 경제의 마비를 나타낸다. 마리아는 만성절 전 날 밤 조의 집으로 가던 중 전차에서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던 영국신사의 친절함에 정신이 팔려 케이크를 전차에 놓고 내리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는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경제권을 빼기고 있는 아일랜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일랜드의 경제적 마비는 갈색의 거리, 작고 초라한 집들, 거기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의 남루한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애러비」의 갈색 거리, 「이블린」의 작은 갈색 집들, 「짝패들」에서 패링턴이 퇴근길에 보는 초라한 신문팔이 아이들 등이 그런 예이다. 특히 「작은 구름」의 챈들러(Chandler)가 겔러허(Gallaher)를 만나러 가는 길에 보게 되는 거리에서 노는 남루한 옷의 아이들, 부둣가의 초라한작은 집들 등 많은 배경과 세부적 묘사에서 볼 수 있는 아일랜드의 경제는 화려한 호텔 코레스(Corless)가 ‘속이없는 공허한’(coreless)를 암시하듯이 빈 껍데기 경제임을 시사한다. 또한 챈들러가 가난했던 옛 모습을 회상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더블린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경제적인 마비로 무능력한 더블린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4. 정치적 마비

「담쟁이 날의 선거 사무실」(“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은 아일랜드 신교도의 정신적 지주이자 애국자였으며 독립을 이끌었던 파넬(Parnell)의 죽음을 추모한 날인 10월 6일, 즉 아이비(Ivy) 기념일에 더블린의 어느 시의원 선거 사무실에 모여든 선거 운동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패와 비리로 가득 찬 더블린의 정치적 마비를 보여준다.

선거 사무실에 모인 운동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돈을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티어니(Tierney)의 선거운동원들이지만 충성심은 커녕 배반의 모습을 보인다. 처음에 등장하는 잭(Jack) 노인이 다 꺼져 가는 불을 살리려 하는 장면, 그리고 이 사라져 가는 불 외에는 깜깜한 모습과, 밖에서 계속 비가 내리는 어두운 분위기는 정치적 타락을 나타낸다. 이는 더블린의 정치적 마비를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첫 장면의 오코너(O'Connor)는 급료에만 신경을 쓸 뿐 하루 종일 난로 가에 앉아 일은 하지 않는다.

> Mr. O'Connor had been engaged by Tierney's agent to canvass one part of the ward but, as the weather was inclement and his boots let in the wet, he spent a great part of the day sitting by the fire in the Committee Room in Wicklow Street with Jack the old caretaker.(p.175)

또한 그는 그가 선거운동을 하는 티어니의 선전 벽보를 찢어 담배 불을 붙이는데 이는 진실성이 결여된 선거운동원으로 배반과 허위를 보여준다. 더욱이 그 불이 가슴에 붙은 담쟁이 잎으로 옮겨 붙은 것은, 그의 배반이 파넬과 아일랜드를 배반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담쟁이 잎은 민족 지도자였던 파넬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등장하는 하인즈(Hynes)는 들어서면서 “어두운데서 뭣하고 있습니까?”(What are you doing in the dark?)라고 묻는데 이 ‘어둠’은 선거원들의 배반과 더블린 정치의 어둠을 암시한다. 하인즈는 파넬의 추종자로 티어니에게 경계심을

품고 있으며 티어니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관직에만 이끌린다고 비난하며 그의 운동원들이 자신들의 선거 자금에만 몰두해 있다고 힐난한다. 하인즈는 자신의 옷깃에 있는 담쟁이 잎을 가리키면서 파넬의 민족주의를 상기시킨다.

이윽고 또 다른 선거원인 헨치(Henchy)가 들어서면서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No money, boys)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오직 돈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왕 에드워드 7세(Edward VII)의 아일랜드 방문에 대한 환영 연설의 실시 여부에 대한 더블린 의회의 의견이 분분하자 하인즈는 깃에 달린 담쟁이 잎을 가리키며 환영 연설을 해선 안 된다는 표시를 하는 반면 헨치는 티어니가 국민당이건 아니건 환영 연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로 “왕이 여기에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The King's coming here will mean an influx of money into this country.)라고 말한다. 또한 티어니에게서 급료지불이 연기되자 헨치는 불만을 토로하여 그를 비난하지만 티어니가 보낸 술병 꾸러미가 도착하자 그의 태도는 돌변한다. 이렇듯 헨치는 이중인격과 위선의 인물이다.

술과 함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 칭송된 하인즈의 시가 낭송되는데 그는 자작시를 통해, 파넬이 ‘우리의 무관의 왕’(Our(Ireland's) Uncrowned King)이 말세의 위선자(the coward hounds)인 아일랜드 국민들에 의해 배척당한 것을 한탄한다. 잃어버린 영도자에 대한 뼈저린 슬픔과 열망,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고픈 소망을 담고 있으나 현실을 극복하고 문제점을 반성하여 실천에 옮기기보다는 막연한 감상주의와 노여움에 빠져있다. 또한 잭(Jack) 노인도 파넬의 시대에는 삶이 활기차고 의미있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한탄하면서 위원회실에 있는 난로의 불꽃을 살리려 한다. 잭 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꺼져가는 난로불은 더블린의 삶의 불꽃이 점점 시들어 감을 상징한다. 이는 더블린의 정치적 마비와 배반적인 민족주의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에피파니가 된다. 아일랜드의 정치적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날 의지와 힘이 없는 아일랜드 사회와 사람들을 적나라 하게 나타내고 있다.

아일랜드의 정치적 마비는 「경주가 끝난 뒤」(“After the Race”)에서 주인공

지미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지미의 아버지는 당시 아일랜드에서 파넬이 이끄는 진보적 국민당원 이었으나 일찌감치 노선을 바꾸고 킹타운에 정육점을 열어 돈을 버는 일에 일생을 바친 정치적 변절자이다. 그리고 권력의 상징인 경찰에 협력함으로써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돈을 축척하는데, 그를 통해 정치적으로 마비된 더블린의 이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아일랜드의 정치적 타락은 「두 부랑자」의 코얼리와 하녀와의 관계에서 나라를 매도하는 배반자와 아일랜드의 관계로 발전된다. 하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코얼리와 레너한은 킬데어(Kildarer)가를 걸으면서 술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청중들에 둘러싸여 하프를 연주하는 악사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악사의 연주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하프는 전통적으로 아일랜드의 상징[23]인데 악기의 덮개가 무릎까지 떨어진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친 모습으로 줄을 튕기는 악사는 사랑을 가장하고 돈을 뜯어내는 코얼리를 연상시킨다. 또한 돈을 구걸하는 수단으로 쓰는 하프는 하녀와 동일시되면서, 하녀는 타락하고 마비된 상황의 아일랜드로 상징된다[24]. 마침내 하녀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코얼리가 손바닥에 놓인 금화를 레너한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배반과 타락을 상징한다. 즉 그가 그녀를 배반하는 그것은 조국 아일랜드를 배반하는 행위를 상징한다. 따라서 금화를 뜯어내고 배반의 미소를 짓는 코얼리에게서 나라를 배신한 아일랜드의 타락한 정치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더블린의 정치는 밀려드는 외세에 대항할 기력도 없이 내분과 당쟁만 일삼는 모습으로 그 타락을 보여준다. 「애러비」의 망간의 누이는 아일랜드의 종교를 상징함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녀는 늘 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시달리는 누이이다. 아일랜드의 외부로부터 자주성을 유린당하며 이익을 빼앗기고 내부에서도 항상 혼란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따라서 싸우는 동생이나 괴롭히는 동생을 달래지 못하는 그녀는 외세의 침입이나 내분을 수습하지 못하는 아일랜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진흙」에서도 볼 수 있다. 제과점 점원 앞에서 위축감을 느끼며, 신교도들을 위해 불평없이 열심히 봉사하며, 자기가

23) William York Tindall,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Noonday, 1966), p.25.
24) Peter K. Garrett,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Dubliners* (New Jersey: Prentice Hall, 1968), p.8.

손수 키운 앨피(Alphy)와 조 형제간의 싸움을 수습하지 못하는 마리아는 당시 아일랜드 자체 내에서 당파 싸움과 내분으로 혼란스러운 전형적인 상황과 일치된다[25]. 즉 영국의 정치적 지배하에서 마비된 아일랜드의 정치적 마비상을 보여준다.

5. 문화적 마비

「어머니」는 물질주의에 깊이 감염되어 있는 아일랜드 문화계와 타락한 성인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다소 과격한 성격의 키어니 부인(Mrs Kearney)은 자기 딸이 피아노 반주를 하기로 계약된 음악회가 예상과 달리 청중이 많지 않고 공연기간이 단축되자, 원래 계약된 공연일자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요구하며 싸움을 하다가 음악회 도중에 딸을 데리고 퇴장해 버린다. 3류 음악회는 「아이비 날의 선거사무실」의 3류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의 문화적 마비 현상을 보여준다.[26]

> When she came to the age of marriage she was sent out to many houses, where her playing and ivory manners were much admired. She sat amid the chilly circle of her accomplishments, waiting for some suitor to brave it and offer her a brilliant life. But the young men whom she met were ordinary and she gave them no encouragement, ...(pp.198-199)

피아노 연주를 잘하고 세련된 몸가짐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사던 어머니 키어니 부인은, 결혼이 마음같이 쉽게 풀리지 않자, 소박하며 믿음직한 구두장이 키어니를 만나 전격적으로 결혼에 이른다. 이번에 약속한 음악회는 금전상으로도 또 사교상으로도 큰 실패를 가져 왔으며, 딸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다. 즉, 돈에 대한 부당하고도 성미급한 관여와 그 일로 인하여 기분이 나빠져, 마침내는 그녀의 매너가 세련되지 못했음을 남에게 알리는 셈이된 이 사건은, 딸에게도 심한 타격을 준

25) William York Tindall,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Noonday, 1966), p.30.
26) William York. Tindall,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Noonday, 1966), p.36.

다. 음악회 경영 방법의 경솔함, 출연진의 평범성, 관중들의 무례함, 그리고 키어니 부인의 탐욕등은 아일랜드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제력의 현저한 결핍, 즉 마비상[27]을 그대로 보여준다.

> Unknown solitary woman with a pale face walked through the room. The women followed with keen eyes the faded blue dress which was stretched upon a meagre body. Someone said that she was Madam Glynn, the soprano.(p.207)

영국에서 초빙한 소프라노 Madam Glynn의 유령같이 초라한 모습은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된 예술생활을 단적으로 암시해 주며, 낡은 무대 의상실에서 죽었다 살아 나온 듯한 창백한 외모, 그녀의 낡아 빠진 옷 매무새, 형체없이 헐떡이는 듯한 목소리들은 마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The first part of the concert was very successful except for Madam Glynn's item. The poor lady sang Killarney in a bodiless gasping voice, with all the old-fashioned mannerisms of intonation and pronunciation which she believed lent elegance to her singing. She looked as if she had been resurrected from an old stage-wardrobe and the cheaper parts of the hall made fun of her high wailing notes.(p.212)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키어니 부인은 세상의 이중성을 인정하며, 잘 아는 사람들에게 술과 과자를 권하는 대신 꼭 댓가를 지급받으려고 하며, 자기의 기분에 안드는 사람은 여지없이 파문하려 한다. 단편의 중간에 나타나서 끝까지 모든 판단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 신문 기자 오매든 버크씨(Mr O'Madden Burke)의 신비

---

27) Peter K. Garret,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Dubliners* (New Jersy: Prentice Hall, 1968), p.79.

스런 우산은 키어니 부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더 돋보이게 한다.[28]

마지막 공연의 전반부가 커니 부인과 주최측의 금전 시비로 우여곡절 끝에 끝났을때, 오마든 버크씨는, 자기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추악한 공연이었다고 비난하며 키어니양의 음악 생활도 더블린에서는 이제 끝장났다고 말한다.

> Mr O'Madden Burke said it was the most scandalous exhibition he had ever witnessed. Miss Kathleen Kearney's musical carrier was ended in Dublin after that, he said.(p.213)

예술을 순수히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대변자격으로 존경받는 그는 주최 측의 홀로한(Holohan)에게 키어니 부인에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말한다. 금전 시비로 인하여 마지막 공연의 후반부 반주는 다른 사람이 맡게 되고, 키어니 부인은 후반부 시작 소리와 동시에 도망치듯 딸을 데리고 음악회장을 빠져 나간다. 출연자 사이의 사소한 말다툼의 장소(Petty squabble between part-time entertainers)로 전락한 더블린의 문화적 마비상을 「어머니」(“A Mother")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29]

「작은 구름」("A Little Cloud")의 챈들러는 전형적인 더블린 시민으로 틀에 박힌 일상에 벗어나지 못한 채, 이상과 꿈을 상실한 성년 남자이다. 그는 갤러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부둣가에 있는 초라하게 일그러진 집들을 보며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시로 표현하여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시상은 한낱 감상에 불과하며 수준 높은 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는 또한 훗날 자신의 시가 알려지게 될 때 자신의 이름이 좀더 아일랜드계답게 보이기 위해 이름에 어머니의 이름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속물성을 드러낸다. 또한 「아이비 날의 선거사무실」의 하인즈가 읊은 시는 애국자 파넬을 추모하는 시로서, 진부한 문구와 표현들을 사용함으로

---

28) William York Tindall,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Noonday, 1966), p.37,

29) C.H. Peake,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p.4,

써 문화적 저급성을 보여준다.

B. 마비의 각성과 극복

『더블린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암담한 현실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낭만적이고 모험적인 꿈을 갖게 되나 대부분 그들의 꿈은 좌절되고 만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공상 내지 환상의 차원에서의 낭만적인 꿈을 꿈으로써 현실의 마비적 상황 아래의 답답하고 우울한 심정을 달래려 하는 양상을 발견 할 수가 있다.

「자매」에서 주인공 소년은 꿈속에서 기다란 벨벳 커텐과 고풍의 램프가 보이는 이국적인 페르시아의 풍경을 보게 된다. 「우연한 만남」에서 주인공과 그 친구들은 인디언이나 탐험가, 선원등에 관한 모험적이고 낭만적인 내용의 책을 읽는다. 「애러비」에서는 그 제목 자체가 오리엔탈 모티프의 하나이다. 이것은 주인공 소년의 낭만적인 사랑의 꿈과 연결된다. 「이블린」에서 주인공 이블린은 애인 프랭크와 함께 고통스럽고 구속된 도시생활을 떠나 남미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서 그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을 꿈꾼다. 「작은 구름」에서 챈들러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답답함과 우울함을 달래려고 낭만적인 반항아 시인 바이런(Byron)의 시를 애송하고 있다. 「어머니」에서 키어니 부인은 터키시 디라이트(Turkish Delight)라는 과자를 먹음으로서 그녀의 낭만적인 꿈을 달래려 한다. 여기에서 과자이름 터키(Turkey)는 동양적인 것에의 동경과 낭만적 탈출이라는 의미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갈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주인공들은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보상 심리로 과거의 행복한 시절의 추억과 연상속에 잠겨 있다든지 상상을 통하여 공상이나 환상의 세계에 빠져 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과 『율리시즈』(*Ulysses*)의 서문격이자 『더블린 사람들』의 축도라고 할 수 있는[30] 「죽은 사람들」("The Dead")은 이제까지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의 국면으로 나뉘어 온 마비의 주제를 완결시키면서 전체 단편들을 마무리 짓는 에필로그에 해당된다. 이

30) William York Tindall,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59), p.49.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가브리엘 콘로이(Gabriel Conroy)는 아일랜드의 민족적 열망에 냉담하고 유럽 문화에 이끌리고 있으며 낙후된 더블린 사람들보다는 교양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조이스를 닮았다.

파티를 베푸는 모칸(Morkan) 자매의 죽은 언니의 아들이며 대학교수인 가브리엘 콘로이가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가브리엘은 외형적으로는 활기에 차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가득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파티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도 겉으로 보이는 풍성함과 따뜻한 분위기속에 음산함을 느낄 수 있으며 참석한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마비된 자들이다. 작품 내용들이 대부분이 파티에서 일어난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으나 결국 주인공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한 전주곡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서로간에 고립되어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가브리엘의 이모들은 웃으면서 자신이 웃는 이유를 모른다. 프리디 말린(Freedy Malin)과 그의 어머니는 자기 도취에 빠져 상대방의 관심에는 아랑곳없이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브라운(Brown) 역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

이렇듯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편협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얽매인 모습들이며 자기들의 의견만이 옳고 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가브리엘은 「참혹한 사건」("A Painful Case")의 더피(Duffy)씨처럼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항상 교만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 그는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는다. 처음 그는 문지기 딸인 릴리(Lily)에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녀는 어깨 너머로 그를 힐끔 쳐다보며 몹시 신랄하게 "요새 남자들은 하나같이 말만 그럴 듯한데다가 그저 뭐 뜯어먹을 게 없나 하는 연구만 하는 작자들인 걸요“(The men that is now is only all palaver and what they can get out of you.)라고 말함으로써 친절한 우월적 동정심을 내보이려던 가브리엘의 이기심은 릴리의 예상 밖의 반발에 부딪혀 손상 당하는데, 이 실수는 근본적으로 그의 독선과 타인과 친교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다. 릴리는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기 위해 들떠 있는 동안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인다. 즉 그 당시 젊은 여성들의 직업이 『더블린 사람들』 각 단편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하녀나 점원으로 경제적 마비에 빠져 있는 더블린의 모습을 릴리를 통해 알 수 있다.

가브리엘의 이기심은 친구이자 민족주의자인 아이보스(Ivors) 양에 의해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

> ‘And haven't you your own land to visit,' continued Miss Ivors, 'that you know nothing of, your own people, and your country?'
> 'O, to tell you the truth.' retorted Gabriel suddenly, 'I'm sick of my own country, sick of it.'(p.268)

아이보스양은 열렬한 민족주의자로 가브리엘이 더블린의 일간지에 기고한 글 내용을 개인주의적 발상이라고 공격하면서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따진다. 아이보스는 그의 민족의식의 결여와 위선적인 지적활동에 대해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보스는 세계주의 내지 유럽적인 가치기준이 결여된 마비의 도시 더블린의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으며, 그녀의 편협한 민족주의는 가브리엘의 대륙지향적인 사고와 마찰을 일으킨다. 조국의 것이 아닌 것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 아이보스와 조국 아일랜드에 진저리를 내는 가브리엘과의 대조는 더블린 사람들의 상반된 두 정치적 견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둘을 조화하지 못하고 파벌싸움에 휘말려 있는 아일랜드의 정치적 마비를 암시한다.

가브리엘은 자기 조국이 진저리가 난다고 쏘아 붙이며, 여자들이란 늘 저렇게 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 Of course the girl, or woman, or whatever she was, was an enthusiast, but there was a time for all things. Perhaps he ought not to have answered her like that. But she had no right to call him a West Briton before people, even in joke. She had tried to

make him ridiculous before people, heckling him and staring at him with her rabbit's eyes.(pp.269-270)

가브리엘에게 친영파(West Briton)라고 욕해대는 아이보스를 보며,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 자기 변명을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심한 충격을 받는다. 자존심에 충격을 받은 가브리엘은 서쪽 골웨이(Galway)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아내의 요구를 냉정하게 뿌리침으로써 릴리와 아이보스에 의하여 손상된 이기심을 만회하려고 한다.

'Goloshes,' said Mrs Conroy. 'That's the latest. Whenever it's wet underfoot I must put on my goloshes. Tonight even, he wanted me to put them on, but I wouldn't. The next thing he'll buy me will be a diving suit.'(pp.256-257)

가브리엘의 노골적인 이기심은 아내를 포함한 3명의 여성에 의하여 타격을 받는다. 아내 그레타(Gretta)와의 덧신(골로쉬 덧신) 논쟁 뿐만 아니라, 아이보스와의 정치 논쟁 또한 그의 우월감을 위협 하며 그를 점점 깊은 불안속으로 빠뜨린다. 파티의 주인공 자격으로 하게 된 연설문의 내용은 젊은 사람들 특히, 자기 이기심에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하여 공격받은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하여 젊은 사람들 특히, 자기 이기심에 상처를 준 아이보스를 비난하며 구세대의 친절한 손님접대, 유머감각, 인간성, 미덕을 크게 강조하는 내용의 것이 된다.[31]

바텔 다아시(Mr Bartell D'Arcy)씨는 성악가로서 이기적인 가브리엘과 파티 참석자들의 마비된 상태와 대조를 이루는 인물로 이야기의 전체에 상징적으로 부상한다. 파티 참석자 모두가 아무 근거없이 가수 카루소(Caruso)를 비난 할 때, 카루소는 가장 훌륭한 성악가라고 그가 판단을 내려준다. 그레타를 다른 꿈의 세계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다아시이며 다른 꿈의 세계로 옮겨주는 역할을

31) Peter K. Garret, ed.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Dubliners* (New Jersy: Prentice Hall, 1968), p.34.

하는 것도 바로 다아시이다.

> ‘Gretta not down yet?'
> 'She's getting on her things, Gabriel,' said aunt Kate.
> 'Who's playing up there?' said Gabriel.
> 'Nobody. They're all gone.'
> 'O, no, Aunt Kate,' said Mary Jane. 'Bartell D'Arcy and Miss O'Callaghan aren't gone yet.'
> 'Someone is fooling at the piano anyhow,' said Gabriel.(p.290)

아직도 자기중심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있는 가브리엘에게 디아시의 피아노 연주는 장난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으며, 반대로 층계의 맨 꼭대기, 피아노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곳에는 아내 그레타가 노래 소리에 매료되어 서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났고, 가브리엘은 아내와 함께 그날 밤 묵기로 예정한 호텔을 향하며,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된다. 다아시가 노래한 “오그림의 처녀”(The Lass of Aughrim)는 죽은 애인을 생각하며 노래하는 내용이고, 그레타는 그 순간 그녀가 처녀시절 골웨이에서 살던 때 사랑하던 소년 마이클 퓨리(Michael Furey)를 그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가브리엘의 이기심에 대한 마지막 도전이 되지만, 아내를 사랑하던 소년은 죽었으므로 방어 자세는 이젠 필요 없어졌다. 자신의 우월감을 한층 더 만끽하기 위하여 가브리엘은 소년의 직업을 묻지만 초라한 가스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말을 듣고는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 ‘He is dead,' she said at length. 'He died when he was only seventeen. Isn't it a terrible thing to die so young as that?'
> 'What was he?' asked Gabriel, still ironically.
> 'He was in the gasworks,' she said.
> Gabriel felt humiliated by the failure of his irony and by the evocation of his figure from the dead, a boy in the gasworks.

> While he had been full of memories of their secret life together, full of tenderness and joy and desire, she had been comparing him in her mind with another. A shameful consciousness of his own person assailed him. He saw himself as a ludicrous figure, acting as a penny-boy for his aunts, a nervous, well-meaning sentimentalist, orating to vulgarians and idealizing his own clownish lusts, the pitiable fatuous fellow he had caught a glimpse of in the mirror. Instinctively he turned his back more to the light lest she might see the shame that burned upon his forehead.(pp.305-306)

그토록 갈망하던 아내에 대한 욕망은 짓밟혔으며, 그에게는 적이 나타난 것이다. 그 적은 죽었고 공장에 다니는 비천한 존재였지만 위선적 태도인 자신에 비하면 죽은 그 소년은 엄청난 사랑의 힘을 지녔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장면 전개는 에피파니가 되어 가브리엘에게 나타난다.[32] 가브리엘은 더 이상 자기 방어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용솟음치던 그레타에 대한 욕정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치스러운 의식이 엄습함을 느낀다. 그레타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타인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초라해 보인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희생했던 마이클 퓨리의 사랑의 열정은 자기보다 나은 것이었고, 이미 죽은 마이클 퓨리보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죽어있는 마비상태임을 깨닫는다. 궁극적으로 가브리엘은 여기에서 성욕의지를 초월하여 보다 넓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 Generous tears filled Gabriel's eyes. He had never felt like that himself towards any woman, but he know that such a feeling must

32) William York. Tindall,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59), p.44.

be love. The tears more thickly in his eyes and in the partial darkness he imagined he saw the form of a young man standing under a dripping tree. Other forms were near. His soul had approached that region where dwell the vast hosts of the dead. He was conscious of, but could not apprehended, their wayward and flickering existence. His own identity was fading out into a grey impalpable world.(p.310)

가브리엘의 겸양은 그의 관용의 눈물 속에 잘 표현되고 있다.[33] 이 눈물은 가브리엘의 인간애에 대한 동정과 공감의 눈물이며 이기적인 자존심 때문에 진실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된 것이다. 동시에 이는 가브리엘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불순물을 일시에 씻어버리는 정화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눈물은 메마른 그의 정신속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사랑의 힘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더블린 사람들』 전체를 특징짓는 마비를 극복하고 생명력의 흐름을 의미해주는 창조적 에피파니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가브리엘은 유리창을 가볍게 치는 눈(snow)을 바라볼 때 이러한 순간적인 깨달음은 절정에 다다른다.

A few light taps upon the pane made him turn to the window. It had begun to snow again. He watched sleepily the flakes, silver and dark falling obliquely against the lamplight. The time had come for him to set out on his journey westward. Yes the newspapers were right: snow was general all over the Ireland. It was falling in every part of the dark central westward, softly falling into the dark mutinous Shannon waves. It was falling, too, upon every part of the lonely churchyard on the hill where Michael Furey lay

33) Warren Beck, *Joyce's Dubliners : Substance, Vision and Art* (Duke University Press, 1969), p.355.

> buried. It lay thickly drifted on the crooked crosses and headstones, on the spears of the little gate, on the barren thorns. His soul swooned slowly as he heard the snow falling fainted through the universe and faintly falling, like the descent of their last end, upon all the living and the dead.(pp.310-311)

이 눈으로 인하여 이제 가브리엘은 완고한 자아에서 벗어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일치시키는 모든 것이 정화된 세계로 흡수된다. 처음에 파티장에 도착했을 때 가브리엘은 눈(snow)를 힘차게 털어내는데 이 때의 눈은 자연의 추위(cold), 적대적인 힘(hostile force), 인간적인 무관심(humanly indifference)의 상징이다. 그러다가 세 번에 걸쳐 자존심에 상처를 입자 이 눈은 새로운 각도로 바뀌어 차츰 그의 마음속에 위안(release), 도피(escape)를 상징하게 된다. 그리고 끝 부분에서는 가브리엘의 자기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관대한 인간애로 향하게 하는 자극이 된다. 즉 지금까지 자기중심에만 사로잡혔던 가브리엘은 미운사람, 고운사람, 과거의 추억에 젖은 아내, 아내를 사랑하는 죽은 마이클 퓨리,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모두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된다. 그는 마침내 산 자, 죽은 자를 포함하여 자신의 영혼을 괴롭혔던 삶도 모두 사랑하게 되는 자기인식이라는 에피파니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눈을 바라보며 새로운 생을 향하여 서부로 여행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 여기에서 그가 전에 서부에 대해서 가졌던 이미지는 죽음을 상징했으며, 전통적인 이미지로 '서부로의 여행'(westward journey)은 죽음을 상징했다. 또한 서부는 마이클 퓨리가 죽어서 묻혀 있던 곳으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의 의미에 대한 자각을 가진 후의 가브리엘에게 서부의 의미는 퓨리와 그레타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던 곳으로 그가 대면해야 할 현실을 나타내며 삶과 죽음의 만남을 상징하고, 가브리엘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서부에 대한 냉대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인간적인 만남에 대한 준비를 나타낸다. 또한 이는 『더블린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도피와 동경의 장소로 거론되어온 동양의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며 가브리엘이 가져왔던 우월감과 허황됨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죽은 사람들」은 『더블린 사람들』의 총화격이요, 클라이맥스 스토리로서 앞의 14개의 단편에서 어느 정도 초연해 있다. 조이스는 앞에서 보았던 14개의 단편의 부정적인 결말, 즉 정신적 자각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나 버리는 주인공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어느 날 죽은 자들을 일깨우는 천사장의 이름을 가진 가브리엘로 하여금 정신적 부활을 이루게 한다. 이렇듯 「죽은 사람들」에서는 마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더 마비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삶을 사는 더블린 사람들과는 달리, 주인공이 자신의 마비의 실체를 인식하고 그 마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즉 정신적 해방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이스는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징을 이용한 긍정적인 에피파니를 통한 삶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진정한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

III. 결 론

조이스의 단편집 『더블린 사람들』은 유년기, 사춘기, 성년기 그리고 공공생활기의 네 시기로 구분된 14편과 마지막을 이루는 「죽은 사람들」을 합쳐 총 15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유년기를 다룬 「자매」, 「우연한 만남」, 「애러비」에서는 불결하고 추악한 성인 세계에 의해 좌절되는 소년들의 심리적 경험이 나타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인들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이블린」,「경기가 끝난 뒤」, 「짝패」, 「어머니」에는 이미 더블린의 마비에 철저히 물들어 타락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서로간의 진정한 애정은 결여되고 부모의 허영심과 억압된 욕구 불만을 자식에게 터뜨리는 비극적인 가정 생활이 전개된다. 또한 미혼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이블린」", 「두 부랑자」, 「하숙집」에서는 순수하고 올바른 남녀관계는 상실되고 오로지 경제력만을 위주로 삼고 있으며,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결혼이나 위선등을 돌파구로 삼는다. 그리고 인간애마저 거부한 고독한 독신자 더피씨의 메마른 삶을 다루고 있는 「참혹한 사건」,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혼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작은 구름」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아이비 날의 선거사무실」이 있다.

위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더블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역경과 어둠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정신적인 마비상태에 처해 있고, 외부 현실에 대하여 자아의 벽을 쌓아 감으로써, 스스로 고립되고 단절되어 간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야기의 종극(coda)인 「죽은 사람들」에서 조이스는 주인공 가브리엘을 통하여 자기인식에 이르게 하고,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생중사(living-death)를 통해 마비상태에 있는 주인공들에게 정신적인 해방과 희망을 제시해 준다.

15개의 단편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로 인하여 15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의 고리는 바로 마비라는 주제이다. 이렇게 모든 단편들이 '마비'에 밀도있게 집중함으로써『더블린 사람들』의 작품간의 연계성을 지니게 된다. 첫 번째 단편인 「자매」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마비'는 『더블린 사람들』 전체의 중심이요 핵심이 되는 단어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모든 단편 속에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마지막 작품인 「죽은 사람들」에서 정점을 이룬다.

『더블린 사람들』의 주제인 마비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종교적,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마비된 인물들을 각 단편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기력하고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으며, 위선적인 면을 노출시키고 있다. 결국 이러한 마비의 여러 양상들은 15편의 단편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 또한 각 단편들은 문체, 화법, 시점, 성별 등을 달리 하면서도 단일적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이스는 단순히 이러한 마비의 주제를 작품 속에 다루는 것을 의도로 하지 않았다. 『더블린 사람들』을 통해 마비와 좌절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데에 있는 것이다. 즉 조이스의 조국인 아일랜드 사람들이 전반적 “마비”의 양상을 자각하고 각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각성은 마지막 이야기인 「죽은 사람들」에서 절정을 이룬다.

「죽은 사람들」은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전체 작품을 마무리역할을 담당하는 에필로그로서 이 단편집의 작품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자신의 오만과 이기심의 벽을 허물고 삶과 죽음의 상호 의존성을 깨닫는 가브리엘의 자기 인식을 그리고 있다. 자기중심적이던 주인공 가브리엘은 자신이 “살아있는 죽은자”(the living dead)였고 죽은 마이클 퓨리가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snow)을 통해 깨닫게 된다. 조이스는 눈(snow)의 상징성을 통해 주인공이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없는 넓은 세상에 흡수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는 주인공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블린 시민, 아일랜드인,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들의 삶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

다.

이처럼 「죽은 사람들」에서는 마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더 마비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삶을 사는 더블린 사람들과는 달리, 주인공이 자신의 마비의 실체를 인식하고 그 마비로부터 자유로워 지는, 즉 정신적 해방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이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조국 아일랜드를 마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생중사'의 삶을 사는 인물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혹독한 마비를 경험하는 동시에 그러한 마비의 체험을 통하여 조국 아일랜드의 정신적 해방을 주장하고 있다.

조이스는 국가, 종교, 가정을 버렸으면서도 가정적인 혈육의 정을 항상 느낀 종교적 작가요 가장 아일랜드적인 작가이다. 동생에게 1906년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보면 이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다.

> Sometimes thinking of Ireland it seems to me that I have been unnecessarily harsh. I have not reproduced its ingenuous insularity and its hospitality. The later virtue, so far as I can see, does not exist elsewhere in Europe.[34]

비록 『더블린 사람들』이 더블린이라는 한정된 도시를 배경으로 쓰여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이스의 모든 문학의 배경이 되고 있는 더블린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현대 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으로, 조이스가 인식하고 고발한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와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제시한 사랑과 이해라는 정신적 재생의 희망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가능성과 내일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

34) Richard K. Cross, *Flaubert and Joyce - The Rite of Fiction* (Princeton Univ. N. J. 1971), p. 19.

Bibliography

Atherton, James S. "Araby, James Joyce Publishers" : *Critical Essays*, Clive Harts. London : Faber and Faber, 1969.

Beck, Warren. *Joyce's Dubliners: Substance, Vision, and Art.* Duke University Press. 1969.

Cross, Richard K. *Flaubert and Joyce : The Rite of Fiction*, Princeton University. New Jersy. 1971.

Ellmann, Richard. ed. *Letters of James Joyce II.* New York : The Viking 1966.

Ellmann, Richard. *James Joyce*.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Garrett, Peter, K.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Dubliners.* New Jersy : Prentice Hall, 1968.

Ghiselin, Brewster. *The Unity of Dubliners, Dubliners : Text Criticism and Notes.* Eds. by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Massachusetts : Penguine Books, 1977.

Goldman, Arnold. *The Joyce Paradox.* Evanstone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6.

Goldman, Arnold. *The Joyce's Dubliners : Critical Essays.* London : Faber Faber, 1969.

Hodgart Mattew. *James Joyce : A Student's Guide.* London :Routhedge & Kegan Paul, Ltd., 1978

Kenner, Hugh. *Dubliner's Joyce.*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57.

Levin, Harry. *James Joyce :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 Faber and Faber Ltd., 1960.

Parrinder, Pattrick. *James Joyc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 Farrar, and Straus & Giroux, 1978.

Walzl, Florence L. "Pattern of Paralysis in Joyce's Dubliners." *College*

English Vol. 22, 1982.

Walzl, Florence L. "Dubliners,"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Eds. Zack Bowen et al. Westport: Greenwood Press, 1984

W. Powell, Jones. *James Joyce and the Common Reader*. (Oklahoma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55.